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월 6일(목)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 440-4821 · 담당자 이근왕 ☎ 440-48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2024년 개관)을 위한 유물기증 참여 홍보**  
**2022년 1월 해양유물 선정 “해옥[海屋]”**  
 - 새해를 맞아해 시민 여러분의 장수와 평화를 기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의 대표 거점으로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매월 해양유물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으며, 2022년 첫 번째 해양유물로 ‘해옥(海屋)’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는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유물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해양유물의 소장가치를 알림으로써 박물관 유물 수집에 대한 범(凡)시민 참여 분위기를 독려하고자 함이다.

‘해옥(海屋)\*’은 개화기 정치인이자 문인화가로 알려진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서예작품으로서, 바다의 신선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으로 장수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해상의 신선이 사는 집에 선학(仙鶴)이 해마다 주(籌: 산가지)를 한 개씩 물고

온다는 전설에서 나온 고사로, 남의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로 사용

중국 북송대 시인 소식(蘇軾)의 문집『동파지림(東坡志林)』「삼로어(三老語)」에 장수를 축원하는 표현인 ‘해옥첨주(海屋添籌)\*’에서 따온 글귀이다. 대한제국의 애국가에도 ‘해옥’이라는 가사가 있어, 조선말에는 널리 사용됐던 표현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을 맞아해 우리 모두의 건강한 한해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해옥’을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서체 및 사용한 인장 등을 미루어 민영익이 자신의 독자적인 서풍(書風)을 형성해가던 초기작으로 보인다. 민영익의 서예작품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작은 거의 없어 이 작품이 그의 서예 화풍 연구에 가치가 높다.

‘해옥’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의 유물로서 해양사, 해양교류,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선박, 각종 어업도구 등 시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할 의사가 있는 시민께서는 해양수산부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담당자(전화 044-200-5232)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유물 선정을 통해 소중한 해양 문화재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알리드리고자 하며, 시민 여러분들께 2022년 새해에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기증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 2022년 1월의 해양유물 『해옥[海屋]』



민영익 | 조선 19세기 | 112×64cm | 종이에 먹 | 국립인천해양박물관(2024년 개관) 소장 예정

※ 출처 : 본 이미지는 해양수산부에 저작권이 있음을 밝힙니다.